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애국업적

8월 15일.

우리 겨레가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여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이 뜻깊은 민족적명절에 더욱 깊이 새겨안군 하는 력사의 진리가 있다.

국력이 약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는것, 힘이 강해야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킬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나라의 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하는것을 우리 겨레가 더욱 뼈저리게 체험한것은 섬나라오랑캐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길 때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 그것은 약소민족이 당한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였다.

일제는 황궁을 무력으로 겹겹이 포위하고 황제와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망국조약을 강박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고종황제가 《조약》날조를 끌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헌법정치》가 아닌 《군주전제국》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피천만한 일》이라고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했다.

그리고 최고주권자인 황제의 비준도 옥새날인도 없는 조약문서를 《조약》이라며 세상에 공포했다. 망국은 누구도 원치 않았으나 그것은 국력이 약한 조선민족이 당한 슬픈 운명이였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은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만도 12척에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륙군상비무력을 가지고있었다. 이 방대한 무력을 배경으로 일본은 조선봉건정부에 망국조약을 강요하려고 로일전쟁에 투입했던 저들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였다. 당시 서울에는 일본군의 보병 3만명, 기병 800명, 포병 5 000명이 투입되였다.

이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에 2개 련대 5 000명과 지방에 8개 대대 약 2 000명을 합쳐 7 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개 사단의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는것이였다. 군대의 기본무장장비도 창과 활, 화승대였다.

20만명 대 7 000명.

대포 대 화승총.

이것이 1905년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군력실태였다. 이런 군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20세기초 망국조선이 터뜨린 원한의 통곡소리는 힘이 없어 한순간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겨레의 곡성이고 피눈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망국은 순간이고 복국은 천년이라고 밝히신것처럼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힘든 것이 나라이다. 그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까지에는 무려 4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하기에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 주체적인 병기공업을 창설하고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렇게 일떠선 병기공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이 만든 기관단총과 수류탄, 박격포 등을 가지고 후날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는 미국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던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공존》을 떠들고있던 때에도 군력이 약하면 나라를 지킬수 없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자위적군력을 더욱 억척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화발전시켜주신 자위의 군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시련의 나날 군력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며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를 후대들도 알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선군의 길을 걷고걸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모습을 천만인민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힘이 강해야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인민들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미래도 담보할수 있다,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피를 물고 달려들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심신을 깡그리 바치시여 자위의 군력을 억척으로 다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필승의 초강대국으로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는 가공할 타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났다. 오늘도 사람들은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불줄기를 내뿜으며 만리창공으로 힘차게 솟구쳐오르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장쾌한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고있다.

지난 4월 25일 심야열병식장을 누비던 철의 흐름은 또 얼마나 장쾌한것인가.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사상초유의 힘을 한가슴에 안아보던 력사의 그 순간에 온 나라 인민은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을 마련해주신 절세위인을 우러르며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시며 무적필승의 국력을 떠올리시기 위해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한치한치 뚫고가시였고 허리치는 바다물속에도 남먼저 들어서시였으며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를 누구나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다. 땅도 그 땅이고 인민도 그 인민의 후손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한세기전의 조선이 아니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나라, 넘본다면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어야 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이다.

바로 이런 강대한 나라를 우뚝 세워주시여 민족의 반만년 강국념원을 풀어주신것이야말로 절세의 위인들께서 이 나라와 인민, 겨레를 위하여 쌓으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애국업적이다.

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는 불가항력이 있기에 공화국은 끄떡없고 인민의 천만년 밝은 미래도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해방된 조국강산에 울린 새 삶의 노래들

존엄을 영광의 최절정에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던 민족수난의 시기 조선인민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나라가 없어 존엄도 권리도 짓밟힌 인민에게 변변한 이름이 있을리 없었다.

밭고랑에서 태여났으면 고랑녀, 지주집종살이를 하면 마당쇠, 부엌녀로 불리웠고 막벌이군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장돌이 등 수난많은 삶들이 그대로 이름들에 비껴있었다.

더우기 일제의 악랄한 《창씨개명》으로 하여 그 이름마저 빼앗기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불쌍한 조선민족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렇듯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적시책들을 련이어 실시하시여 인민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의 새세상에서 어제날의 고랑녀, 마당쇠들이 자기 이름 석자가 새겨진 말뚝을 기름진 옥토에 박으며 농민대표로, 또 자기의 이름이 씌여진 대표증과 선거표를 눈물속에 어루쓸며 녀성대의원, 영웅으로 자라났다.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빛이 없던 이름들을 자주적인민의 존엄높고 긍지높은 이름으로 되게 해주시였다.

오늘도 대동군 성문리에 가면 어버이수령님께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고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몸소 현지에까지 나와 지도해주시던 나날에 한 머슴군의 이름을 친필로 써주신 문패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들을수 있다.

주체35(1946)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군 성문리에서 대지주의 머슴으로 한생을 살아온 늙은 로인을 만나주시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남조선으로 도주하였다는 대지주의 집에서 잔뼈가 굵기 전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때까지 일생 머슴살이를 해온 로인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피맺힌 이야기도 들어주시며 고래등같은 지주집과 세간살이등속을 모두 그 로인이 쓰고살도록 해주시였다.

또한 집대문에 문패까지 몸소 써서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필로 활달하게 써주신 자기 이름석자를 쓸고쓸며 이날 그 농민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 이름들이 새겨졌던 소중한 한치의 땅도, 존엄높은 삶도 다시는 침략자들에게 빼앗길수 없기에 이 나라 인민은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도발자들에게 된매를 안기고 조선사람의 본때를 만방에 과시하였다.

미제를 쳐부신 긍지와 자랑을 안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기적을 창조하여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오늘날 공화국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사랑의 손길아래 강국의 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위용떨치며 존엄과 영광의 최절정에 서있다.

세상에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인민들이 있지만 령도자로부터 《위대한 인민》으로 떠받들리우며 사는 행복한 인민이 어데 또 있는가.

만고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주체조선의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영광을 영원히 세계만방에 떨칠것이다.

박남수

《밭갈이 노래》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뻐꾹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가세

주인된 새땅엔 기쁨도 넘실넘실
새로 푼 논에는 봄물결 출렁출렁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한친들 묵이랴 밭갈이가세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러불러
장군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세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충성의 한마음 밭갈이가세

주체36(1947)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난생처음 제땅에서 밭갈이를 하게 된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을 노래하고있다.

해방된 조국강산에서 땅의 주인으로 된 기쁨과 긍지를 안고 모두다 밭갈이와 씨뿌리기에 떨쳐나선 농민들의 벅찬 로동생활을 자연의 아름다운 화폭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려는 그들의 소박하면서도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고있다.

《산업건국의 노래》

건설의 불꽃으로 몸을 달구어
우렁찬 마치소리 높아갈적엔
쇠같은 팔다리에 피줄이 뛰고
천백만 높은 굴뚝 수풀이로다
아 이 감격을 생산돌격 산업부흥에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부흥에

새 조선 인민의 손 굳게 쥐고서
동무여 나가자 건설의 마당
삼천리 방방곡곡 울리는 교동
그 소리 한마디는 크나큰 승리
아 이 감격을 생산돌격 산업부흥에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부흥에

주체35(1946)년에 창작보급된 이 노래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된 민주개혁에 대한 감격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이 나라 로동계급의 끝없는 기쁨과 랑만을 노래하고있다.

밭가는 농민은 토지의 주인으로, 로동자는 공장의 주인으로 되여 나라의 산업부흥에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모습을 생동한 형상적어휘로 표현한 노래는 당시 이 나라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울려퍼지였고 새 삶을 누리는 인민의 환희와 격정을 세상에 격조높이 자랑하였다.

반만년 처음보는 우리의 자랑
밭가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빛나는 로동법령 갈길을 밝혀
새 조선 굳은 반석 마련되였다
아 이 감격을 생산돌격 산업부흥에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부흥에

《녀성의 노래》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공장의 녀성도 농촌의 녀성도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공장마다 농촌마다 뭉쳐진 녀성들아
우리들은 조국을 건설하는 힘이다
일하자 다같이 우리 행복 위하여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해방후 건국의 첫 기슭에서 창작된 이 가요는 새 조선의 주인으로 억세게 살며 싸워나가려는 녀성들의 환희와 격정을 노래하고있다.

온갖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며 천대받던 녀성들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조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돌려가는 미더운 녀성혁명가들이 되여 어버이수령님 두리에 씩씩하게 뭉쳐나가는 모습이 노래의 구절구절마다에서 보이는듯하다.

본사기자 리경월